

 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	2024. 8. 22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경제활력국	보 도 자 료 PRESS RELEASE	소 상 공 인 과 장	문재원	 710-2520
		경영창업지원팀장	변성연	 710-3901
동영상(웹하드) : 있음 ☐ 없음 ☒		사진 : 있음 ☐ 없음 ☒		후속자료 : 없음

금융부담 뚝다 제주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3.0→2.5% 인하

- 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 0.5%p 인하해 소상공인·자영업자 금융부담 낮춘다 -

-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요자금리를 현재 3.0%에서 2.5%로 0.5%p 인하한다.
- 이번 조치는 도내 예금은행 기업대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대출 연체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으로,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민생경제 활력 지원을 목표로 한다.
- 고금리·고물가 장기화로 금융비용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비용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.
- 제주지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대출잔액, 차주 수가 크게 증가하고,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했다. 2024년 5월 기준 제주지역 기업대출 연체율은 0.93%로, 전국 평균(0.58%)의 1.6배에 달한다.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용 업체 중 폐업자 수도 2020년 618업체에서 2023년 1,706업체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.
- 이에 제주도는 협약금융기관과 논의를 통해 협약금리 조정 의견을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를

0.5%p 인하해 수요자 부담 금리를 0.5%p 인하하기로 했다.

- 보증서 담보 기준 5.5%, 부동산 담보 기준 5.9% 금리를 적용하던 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를 0.5%p 인하하면서 수요자부담 금리를 보증서 기준 3.0%→2.5%, 부동산 기준 3.4%→2.9%로 인하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.

***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 인하**

- 보증서, 부동산 담보 협약최고금리 0.5%p 인하→수요자금리 0.5%p 인하

담보별	현 행(%)			조 정 안(%)		
	협약금리	수요자	이차보전	협약금리	수요자	이차보전
보증서	5.5	3.0	2.5	5.0	2.5	2.5
부동산	5.9	3.4	2.5	5.4	2.9	2.5

* 시설투자자금, 경영안정자금 중 신용담보는 은행자율금리 적용

-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 1월 3.5%로 인상됨에 따라 보증서 기준 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를 5.5%로 인상해 2023년 1월부터 고정 운영되고 있었으나, 기준금리 동결 지속에도 금리 인하를 통해 안정적인 저금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- 수요자금리 0.5%p 인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 이후인 26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소상공인은 0.5%p의 수요자금리 인하를 적용받아 보증서 담보 기준 2.5%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.
- 5,000만 원 대출 기준 금리 0.5%p 인하 시 이자비용만 연간 약 25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□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“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돼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며 “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제주형 금융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” 고 말했다.